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릉부릉.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소리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는 어쩌면 내연기관 자동차 고유의 소리를 모르고 살거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라는 유물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갈지도 모른다. 도로에 하루하루 늘어나는 전기차와 주차장에 빼곡히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보고 있으면, 앞선 예상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의 이동을 책임질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자동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출고 적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다. 독일의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올해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거나 기존 모델의 신규 트림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¹⁾ 발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자동차 구매라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해관계자에게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 부품 중 약 37%는 전기차에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

1) 매일경제, 「하반기 출시 기대작 ... “현대차 아이오닉6(35.2%), 기아 EV6 GT(24.8%)」, 2022.6.16.

로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따른 전장화·디지털화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변화 유형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²⁾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했고,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매 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고용 불안 위기를 느끼는 완성차업체 노동자마저도 탄소중립을 위해 전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³⁾

그동안 자동차 산업 변화와 노동전환의 해외 사례로 미국과 독일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일례로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3월호에서 “기술진보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독일·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⁴⁾ 여러 매체에서도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⁵⁾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그동안 쌓아둔 브랜드 명성을 이용해 발 빠르게 고급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독일에 집중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주요 자동차 제조국인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경우는 대중매체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국내 소비자의 인식에서도 멀어져 이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판매량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DS와 이탈리아의 피아트·마세라티·페라리·람보르기니는 판매량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⁶⁾ 더 나아가 북경은상이나 동풍소콘 펜곤과 같은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

2) 이상호(2022),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N이슈』, 제2022-02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하바라·오민규(2021),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4) 한국노동연구원(2021), 「기획특집: 기술진보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5) 월간노동법률,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2022.11.1.

6)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22), 「통계센터」, <https://www.kaida.co.kr/>.

매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가별로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 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특집이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익하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KLI**